

◆ 會員社 動靜 ◆

利川電機工業(株), ISO 9001획득 해외시장 적극 공략

56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利川電機工業(株)(代表:張世昌)가 국내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세계최대인 7백만볼 규모의 고압대형전동기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번에 이천전기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고압대형전동기는 5000HP 16P 13.8kV 9대를 포함한 총 79대 규모로써, 국내 중전기업계에 새로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특히 단일 프로젝트에서 발주되는 전동기 금액이 세계최고이고, 고난이도가 요구되는 13.8kV의 고압전동기는 국내 관련업계 최초의 수출성과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번 수주는 그동안 경험이 있는 극소수 선진국 중전기제조 대기업에게만 입찰자격이 주어지고, 운전조건이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장소중의 하나인 사우디 담수청 철용성에 이천전기가 경쟁사인 ABB社를 물리치고 당당히 기립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이는 이천전기가 명실공히 국내중전기업계에서 선두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전동기메이커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이같이 이천전기가 세계적인 전동기메이커로서 발돋움하는데는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경영방침이 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전동기 9백30kW 18P 11kV(해수인양 P/P용)에 이어 지난 89년 3050kW 2P의 국내 초유의 고효율고속도발전소용 보일러급수용 펌프의 전동기를 개발, 일본 도리시마에 납품해 고품질을 인정받았다.

국내 중전업계 최초로 공장품질관리 1등급을 획득한바 있는 이천전기는 지난 10월 27일에는 생산하고 있는 전제품에 대해 ISO 9001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ISO 9001인증획득은 전직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엄격한 품질관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제적 인증기관인 프랑스 선급 국제품질 인증협회 BVQI로부터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이는 주 생산품인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펌프, 수배전제어반, 콘덴서, 차단기에 이르기까지 전 품목에 걸쳐 획득함으로써, 국제화와 시장개방에 따른 품질및 신뢰성 확보는 물론 수출확대에 주 력하게됐다.

이와같이 이천전기는 국내 중전기업체의 선두주자답게 고난이도의 고속대용량 전동기를 비롯해 고압대용량 수중모터, 펌프 등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도 성공, 기술선진화는 물론 해외수출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삼성의 자본참여와 함께 금년을 경영혁신을 위한 발판의 해로 삼고, 획기적 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전사원이 품질제고의식으로 무장, 신제품개발로 무한경쟁시대에 승부 를 걸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中原電機工業(株), ISO 9002 인증 획득

특고압 개폐기류(INT S/W, C.O.S GAS S/W) 및 변류기(MOF), 퓨즈(FUSE)등을 전문 으로 생산하는 中原電機工業(株)(代表:李寬鏞)가 KMA-QA(한국능률협회 품질 인증 센터)로 부터 10월 28일 KS/ISO 9002인증을 획득하였다.

62년 창립이래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끊임없는 노력으로 반도체 보호용 퓨즈, 전선퓨즈, 고압한 류 퓨즈 등 각종 퓨즈를 개발해 온 동사는 90, 93년에 각각 가스절연부하 개폐기 및 계기용변성기 의 KS 표시허가 획득과 함께 '92년에는 가스절연부하개폐기, 특고압 COS, 교류기중 부하개폐기 에 대하여 품질관리 등급을 획득하는등 명실공히 개폐기류 전문 업체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번 ISO 9002시리즈 도입은 국제화 및 개방화에 대비한 제품의 품질보증과 품질의 신뢰도 확 보를 통한 기업의 체질개선과 KS/ISO 품질시스템 인증 획득을 위한 TFT를 구성, 본격적인 ISO 9002 획득을 위한 준비와 내부품질 감사및 지난 10월 KQA-QA 본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게 된 것이다.

최고의 품질과 세계제일의 으뜸 기업을 고집해온 동사는 이번 ISO 인증 획득으로 변화하는 국제교류에 발 맞추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며, 또한 국내외적으로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때, 국내 및 해외 수출활동에 밝은 전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曉星重工業(株), 原電용 펌프 日·美와 合作契約

曉星重工業(株)(代表:柳鍾烈)가 原電用 등 대형 펌프사업의 강화를 위해 일본 에바라社, 미국 BWIP社와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효성중공업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발전소 및 화학공장용 대형 특수펌프 사업의 확대강화와 기존 산업용 펌프의 생산고급화를 위해 자본금 200억원의 효성에바라社를 설립키로하고, 합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펌프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효성중공업은 이번 합작으로 에바라사와 BWIP사의 선진기술을 활용,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발전소용 대형 펌프 등 고부가가치 펌프를 자체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중국·동남아 등을 겨냥해 대형 특수펌프를 생산, 수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특수펌프의 국내시장 규모는 연간 2천억원으로 효성중공업은 내년 이 분야의 매출목표를 1천억원으로 잡고 연차적 설비증설을 통해 98년에 3천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또 이번 합작사 설립을 통해 앞으로 반도체 생산설비용 진공펌프와 소각로 등 환경설비 분야에도 진출할 방침이다.

울진·영광 원전 등에 초고압변압기·가스차단기 등 중전기 제품을 납품했던 효성중공업은 이번 합작으로 원전용 특수펌프의 기술축적이 가능해져 향후 북한의 한국형 경수로 핵발전소 건설사업 참여를 위해 이 분야 기술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星計電(株), 전자식 안정기(BALLAST) 미국 수출

국내 최대의 전력기기 전문 업체인 金星計電(代表: 白重英)은 최근 미국의 조명 전문회사로부터 600만 달러의 전자식안정기 수주에 성공, 수출을 하게됨으로써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이번 수출은 모토롤라, 필립스, 마그네틱 등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자체 브랜드로 미국의 유수한 조명전문 업체인 '토마스'社와 '쿠퍼'社의 대량물량을 수주한 것으로 가격경쟁이 아닌 기술력으로 승부, 수출의 활로를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다. 뿐만아니라 그동안의 Retrofit시장에서의 소량물량이 아닌 미국 주요 조명업체의 Lighting Fixture시장에 대량의 고급형 안정기를 수출하게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안정기는 조명시스템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기인데 금성계전이 수출하게된 전자식 안정기는 기존의 재래식 안정기보다 전력을 30%이상 절감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금성계전은 그동안 미국지역에 진출하기 위해 품질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운 점을 감안 UL(미국 표준규격), CSA(캐나다표준규격), ETL(미국전기안전시험규격)등을 획득 하는 한편, 시장분석, 수출전용 생산라인 구축등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왔다.

금성계전은 지난 '90년 사업시작이래 미국의 '마그네틱'社 등에 OEM으로 안정기를 공급하기도 했는데, 지난해까지 美洲등에 전자식 안정기 4,000만 달러를 수출한 바있다.

현재, 금성계전은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설비투자와 함께 신제품·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세계적 수준의 전자식 안정기의 설계·생산능력을 갖춘 업체로 부상한다는 계획이다.

金星電線(株), 超高壓 케이블 감지 시스템 개발

金星電線(株)(代表: 權炆久)가 3백45kV급 초고압 케이블 감지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

금성전선 전력연구소는 지난 91년부터 1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 발전소로부터 대도시 도심 주변까지 전송된 3백45kV이상 전력선로를 지하전력구를 통해 도심권내로 전송하는 지하전력구의 각종 환경 및 전력케이블의 특성변화를 모니터링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초고압 케이블 감지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금성전선은 최근 대도시 도심권을 통과하는 초고압 지하전력구가 늘어나 지중선로가 점점 길어지고 기존 인력에 의한 유지보수작업 등 적절한 감시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상의 조기발견과 사고의 미연방지, 사고시 조기복구 등을 위해 센서활용 기술을 비롯, 광통신 기술, 정보처리기술 케이블 시스템기술, 접속재및 고전압 대전류 기술등을 종합해 이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카메라에 의한 영상신호를 비롯, 광전류 센서에 의한 각종 신호를 광다중전송기 및 광화상 전송기, 광전류계등을 통해 광신호로 바꾸어 광전력 복합케이블 또는 광케이블을 통해 중앙 통제실의 광화상 수신기와 광다중 전송기에 연결, 감시통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 동사는 이 시스템의 개발로 앞으로 연간 5백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現代重工業(株) 승강기用 「벡터인버터」개발

現代重工業(株)중전기사업부는 엘리베이터의 승차감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엘리베이터용 벡터 인버터를 개발했다.

현대중공업이 올해 2월부터 7억원을 투입, 10개월만에 개발에 성공한 벡터 인버터는 기존인버터 제품인 HYDRIVE-J300에 소프트웨어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엘리베이터의 승차감을 향상시켰다.

현대중공업은 현대엘리베이터와 공동으로 이 인버터의 부하시험을 실시한 결과 합격했으며 특히 엘리베이터에 설치했을 경우 엘리베이터가 출발 및 정지할 때 발생하는 흔들림이나 속도감 등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엘리베이터와 유사한 기능을 필요로하는 크레인, 권상기, 주차기 등 높은 토크가 걸리는 기기에도 현재 사용되는 직류전동기 대신에 벡터 인버터를 적용할 경우 사용자의 구입비용이 절감되는 유지보수가 간편한 등 이점을 갖고 있으며 범용의 전동기에 토크 특성을 개선하고 소음과 진동을 제거, 인버터와 결합해 운전할 수 있는 전동기를 개발했다.

東美電機工業(株), 品質分任組 金賞 受賞

東美電機工業(株)(代表: 韓斗錫)은 최근 열린 '94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 자사의 품질경영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東美電機工業은 이번 행사에서 동그라미분임조가 모범분임조 분야에 출전, 금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으며 이와함께 반딧불분임조는 「와이어 선경별 피치지그 복수화로 생산성 향상 및 불량 감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장 개선사례부문에 출전해 동상을 획득하는 겹경사를 일궈냈다. 한편 금상을 받은 동그라미 분임조는 모범분임조 운영사례대회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뛰어난 활동사항을 발표,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전기공업계 중소기업으로 유일하게 금상을 수상해 업계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도 한몫을 해냈다.

寶星重電機(株), 電線휴즈 日에 輸出

寶星重電機(株)(代表: 林都洙)가 일본에 전선휴즈를 첫수출 한다.

보성은 일본 김포전기에 인입선보호용휴즈를 월간 5만개씩 수출키로 계약을 맺고 내년 1월부터 선적하기로 했다.

7년동안 기술제휴관계를 맺어온 일본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아 연간 2백만달러 어치의 전선휴즈를 역수출하게 되었는데 동사는 경기 안산 1공장의 전선휴즈라인에서 수출을 생산할 계획으로 해외 판매를 늘리기 위해 서울영업부에 해외사업팀을 두고 일본 및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지로의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株)코리아스엔, 펌프용 무정류자 DC모터 國産化

(株)코리아스엔(代表:鄭榮春)은 지난해 1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한 이래 최근 제어회로를 원칩화, 모터 구조를 단순화시킨데다 브러시와 정류자가 없어 소음이 거의 없고 마모가 적은 펌프용 무정류자 DC모터를 개발하는데 성공, 내년 2월부터 본격 양산키로 했다.

코리아스엔이 국산화한 펌프용 무정류자 DC모터는 그동안 DC모터의 최대 골칫거리였던 소음과 마모를 크게 개선, 기존제품에 비해 3데시벨 정도 감소시킨 데다 구조가 단순해 수입가보다 30%가량 싼 가격에 공급가능하며 이 제품의 경우 6백rpm대의 저속 고폭으로 제어특성이 우수하고 효율 또한 외산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코리아스엔은 이번 펌프용 무정류자 DC모터 기술을 관련업체에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아래 라이선스계약을 원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추가기술 지원에 나설 계획으로 이를 위해 컴프레서용 팬용, 산업용 모터생산업체들과 일부기술협의를 진행 중이며 그동안 美國으로부터 전량 수입돼온 펌프용 무정류자 DC모터가 국산화됨에 따라 연간 1백 60억원규모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

안 내

韓國電力公社에서 운영중인 한전 잠정표준규격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공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내역 및 시행일자

규격번호	규격명	조작방식	시행일자
PS 151-170	25.8kV가스절연부하개폐기(가공용)	수동조작형	공포일로부터 4개월이후
PS 151-180	"	제어함조작형	공포일로부터 시행

2. 주요 제·개정 내용

- 수동형을 수동조작형과 제어함조작형으로 구분
- 자동형은 삭제

3. 공포일자: '94. 10. 24